

한육우

축산관측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 돼지, 육계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2,5,8,11월) 25일에 발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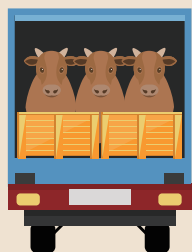
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8,000~19,0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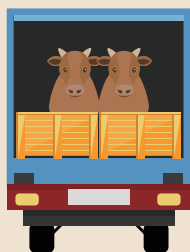
9월 도축 마릿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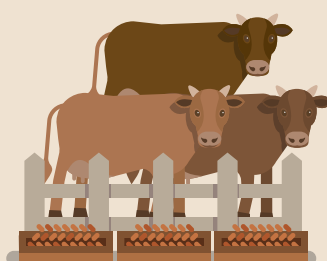
9월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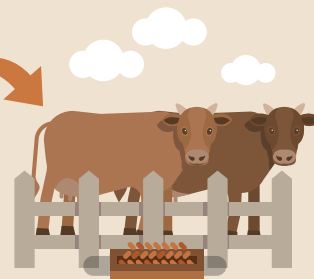
2016



2017



2016



2017

추석 전
(9월)



출하대기 물량 부족으로 도축 마릿수 감소 전망

➔ **1등급 도매가격 일시적 상승**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D-212"

(2018년 3월 24일)



※ 2018년 3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1차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한 농가의 자발적 개선노력 필요

2017년 9월부터 통계 공표 방식 전환



전환



※ 2분기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쇠고기 이력제 자료와 한육우 사육마릿수 **24만 8천 마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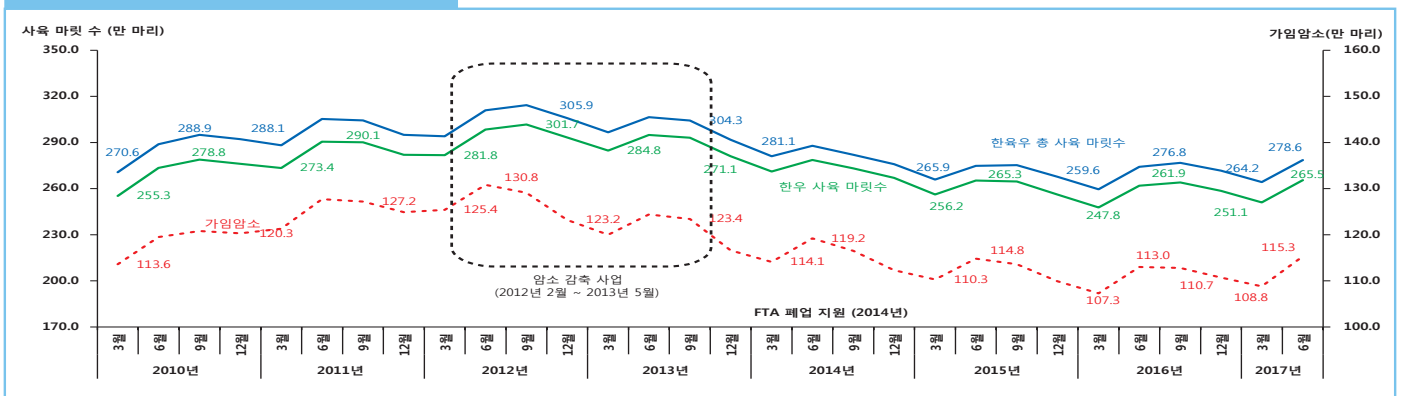
※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1.6% 증가

사육의향 증가로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78만 6천 마리로 전년 동기 274만 2천 마리 보다 4만 4천 마리(1.6%) 증가하였으며, 전 분기보다는 14만 4천마리(5.4%) 증가하였다.
 - 이 중 한우 사육 마릿수는 265만 5천 마리, 육우 사육 마릿수는 13만 1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6.6% 증가하였다.
 - 가임 암소 마릿수는 115만 3천 마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2만 3천 마리) 증가하였다.
- 한육우 사육 가구수는 8만 8천 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천 5백 가구(3.8%) 감소하였으며, 이 중 한우 사육 가구수는 8만 3천 가구였다.
 -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31.5마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마리(5.7%) 증가하였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가임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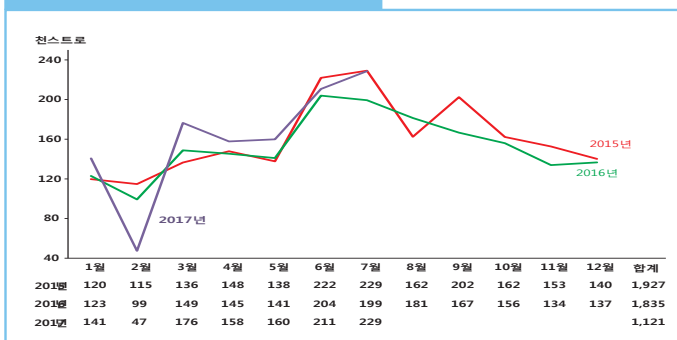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송아지 가격 강세로 한우 정액 판매량 전년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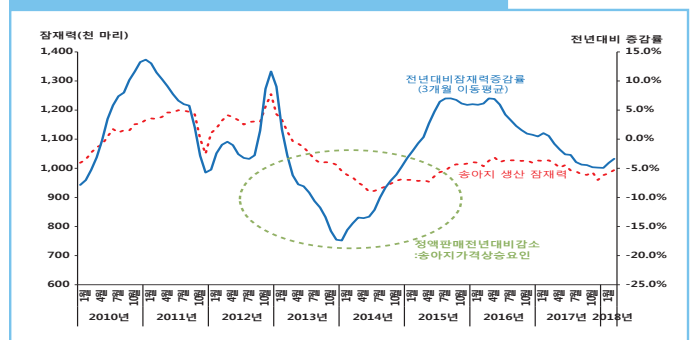
- 1~7월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 동 기간 106만 1천 스트로보다 5.7% 증가한 112만 1천 스트로였다. 이 중 7월 정액 판매량은 22만 9천 스트로로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였다.
- 정액 판매량을 이용한 1세 미만 송아지 생산 잠재력 추정 결과, 2017년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우 정액 판매량 현황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1세 미만 송아지 생산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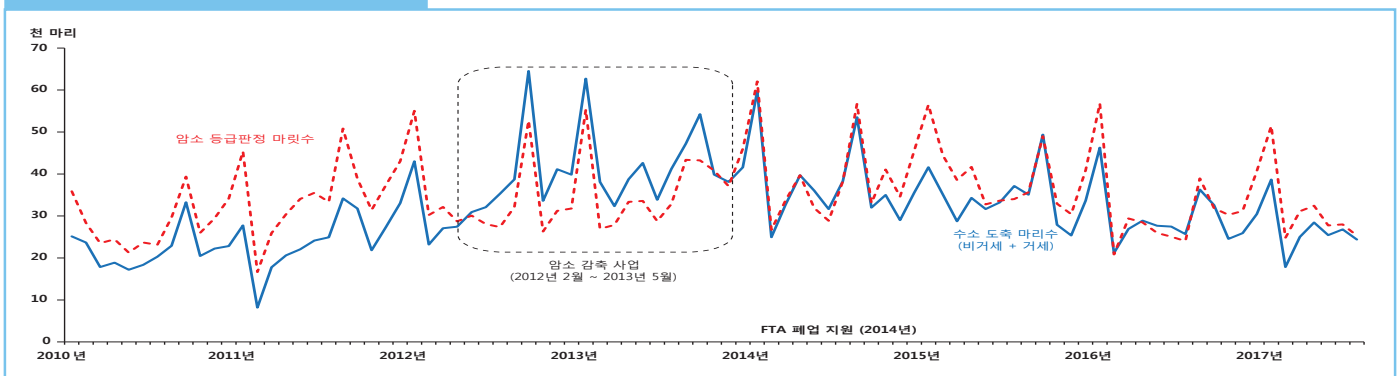
주: 1세 미만 잠재력은 10개월(임신기간) 전 12개월 누적 정액판매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송아지 생산 잠재력을 추정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전년 대비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1.7%, 쇠고기 수입량 0.6% 감소

암소 및 비거세우 출하 감소로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 1~7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41만 마리로 전년보다 1.7% 감소하였다. 거세우의 출하는 증가하였으나, 비거세우 및 암소 출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같은 기간 한우 암소 등급판정 마릿수는 20만 4천 마리(전년보다 8.6% 감소), 거세우 19만 8천 마리(6.4% 증가), 수소는 1만 2천 마리(19.6% 감소)였다.
- 8월(1~23일)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42,533마리로 전년 동기간(46,558마리)보다 8.6% 감소하였다.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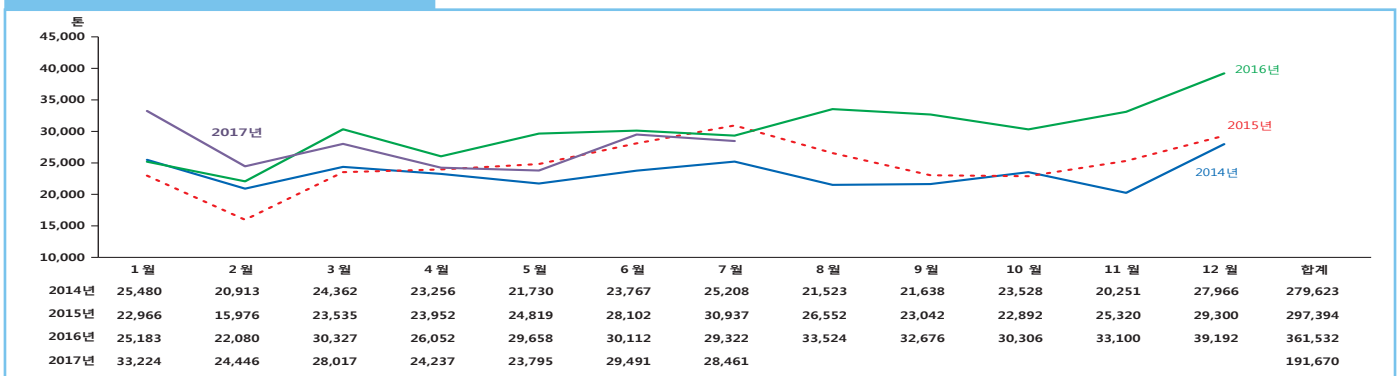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쇠고기 수입량 증가세 둔화로 1~7월 쇠고기 수입량 전년보다 0.6% 감소

-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입육의 수요 증가로 월별 쇠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올해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흐름이었으나, 매월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 1~7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한 19만 2천 톤이었으며, 국가별로는 호주산 8만 4천 톤(점유율 43.6%), 미국산 9만 1천 톤(47.7%), 뉴질랜드 1만 2천 톤(6.3%)이었다.
 - 9~11월 수입량은 전년 동 기간(9만 6천 톤)보다 2.5~3.4% 감소한 9만 3천 톤으로 내외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입 현황(검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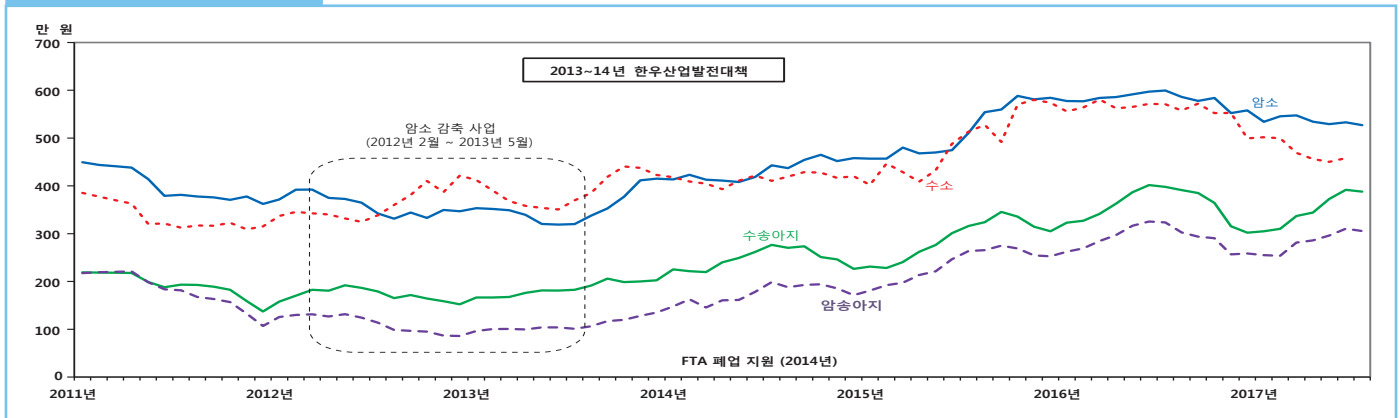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 통계」.

송아지 가격 및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하락

🐮 농가입식의향 증가로 송아지 가격은 상승세이나 전년보다는 하락

- 8월(1~23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364만 원, 암송아지 295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0%, 2.4% 하락하였다.
- 작년 11월 송아지 가격이 급락한 이후 전년 대비 약세였던 송아지 가격은 올해 3월 이후 농가의 입식의향 증가로 점차 전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산지가격 동향



자료: 농협중앙회

🐮 수요 위축으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

- 한우고기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도매시장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 8월(1~23일)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20,775원(지육kg)으로 전년 동월보다 5.3% 하락하였다. 1+등급은 18,823원(지육kg), 1등급은 17,353원(지육kg)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4.8%, 8.1% 하락하였다.

8월 등급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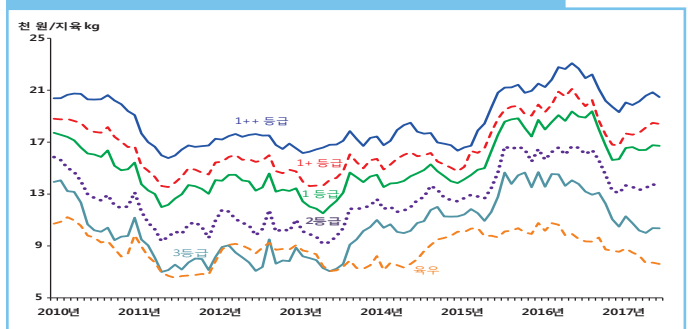
등급	가격(원/지육kg)	전년 대비(%)
1++	20,775	-5.3
1+	18,823	-4.8
1	17,353	-8.1
2	13,914	-13.4
3	10,882	-17.5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수입육 대체로 2~3등급과 육우 도매가격 하락폭 확대

- 8월(1~23일) 한우 2·3등급 도매가격은 지육 kg당 각각 13,914원, 10,882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18% 하락하였다. 육우 도매 가격은 15.3% 하락한 7,917원(지육kg)이었다. 이는 낮은 등급일수록 수입육 대체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과 육우 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2월 사육 마릿수 감소, 9~11월 도축 마릿수는 증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비육농가 수익성 전년 동월보다 약화

- 농가의 수익성은 8월(1~23일) 한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일 경우 경영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리 당 소득은 1등급 이상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에 비해서 70만 원 이상 낮아졌다.

한우 도매가격 및 비육우 소득 추정

단위: 천 원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600kg 기준)	2016년		소득 (A-B)
			경영비(B) (600kg 기준)	생산비(C) (600kg 기준)	
1++	20,775	7,442	5,196	5,976	2,246
1+	18,823	6,742			1,546
1	17,353	6,216			1,020
2	13,914	4,984			-212
3	10,882	3,898			-1,298

주 1: 도매가격은 8월(1~23일) 평균 가격 적용, 경영비와 생산비는 2016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임.

주 2: 두당 가격은 도매가격×지육률(0.597)×600을 적용해서 환산한 수치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청.

1세미만 마릿수 감소와 도축 증가로 12월 한육우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소규모 번식 전문 농가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크게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2017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1세 미만 사육 마릿수 감소와 도축 마릿수의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3% 감소한 276만 마리로 전망된다.
 - 한우 정액 판매량을 이용해 산출한 9~11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간보다 4.5p 감소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12월 사육 마릿수는 1세 미만 사육 마릿수 감소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7% 감소한 267만 마리로 전망된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구 분		겨울(12~2월) (3.1발표)	봄(3~5월) (6.1발표)	여름(6~8월) (9.1발표)	가을(9~11월) (12.1발표)
송아지 생산	2016년	130	294	189	117
	2017년	131	293	185	113
도축 마릿수	2016년	234	182	196	192
	2017년	224	170	200	195
사육 마릿수	2016년	2,596	2,742	2,768	2,717
	2017년	2,642	2,786	2,761	2,671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암소와 거세우 출하대기 물량 증가로 9~11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추석 전 도축물량은 출하대기 물량이 부족하여 전년 대비 2.8%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1등급 도매가격 9월은 전년보다 하락, 10~11월 전년 수준 전망

추석 수요가 예상되지만 9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추석 수요가 예상되지만 9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18,000~19,000원(생체 600kg 환산 645~681만 원)으로 전망된다.
- 추석이 지난 10월 이후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와 수요 불확실성 증대로 9월보다는 하락한 17,000~18,000원(생체 600kg 환산 609~645만 원)으로 전망된다.

한우 가격 전망

한 우		9~11월		
			2016년	2017년
큰 소 (1등급)	산지 (600kg)	9월	694	645~681만 원
		10월 이후	622	609~645만 원
	도매 (지육kg)	9월	19,376	18,000~19,000원
		10월 이후	17,362	17,000~18,000원

주: 큰 소 산지가격은 1등급 경락가격(원/지육kg)에 지육률(59.7%)을 고려하여 생체 600kg으로 환산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한육우 정책 동향: 가축동향조사 이력제 자료로 대체 예정

- 2017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이력제에 따른 소 사육 마릿수가 공표되었으며, 2017년 3분기부터 공식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 이력제에 의한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303만 4천 마리로 가축동향조사 결과와 24만 8천 마리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우 사육 마릿수는 288만 2천 마리로 22만 7천 마리가 차이난다.

소이력제 사육마릿수 현황 및 가축동향조사 자료와의 비교

단위: 천 마리, %

자료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3월	6월	12월	3월	6월	전분기	전년동기
이력제 자료	한육우	2,821	2,966	2,963	2,885	3,034	5.2%	2.3%
	한우	2,676	2,818	2,810	2,734	2,882	5.4%	2.3%
가축동향조사	한육우	2,596	2,742	2,717	2,642	2,786	5.4%	1.6%
	한우	2,478	2,619	2,585	2,511	2,655	5.8%	1.4%
차이	한육우	225	224	246	243	248		
	한우	198	199	225	223	227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축산관측 (한육우) 다음호 예고 (예정일자: 2017. 11. 27.)

- 축 종: 한육우
- 내 용: 사육 동향과 전망, 가격 동향과 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소비동향, 수출입동향

『축산관측』은 농업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산관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을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61) 820-2224 FAX: 061) 820-2411
<http://www.mafra.go.kr> ☎ 044) 201-2333 FAX: 044) 868-3965

담당자: 지인배(축산실장), 이형우(축산관측팀장), 김진년(한육우), 심민희(육계), 한봉희(돼지), 정세미(젖소, 오리), 김명수(산란계), 이승규(문서교정)
『축산관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